

-(으)ㄹ 걸 그랬다

~할 걸 그랬다 (후회)

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후회를 나타냅니다. -(으)ㄹ 것에 그러다를 더해 만들며, 항상 자기 자신의 과거만을 돌아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 걸 그랬다	가다 → 갈 걸 그랬어요
자음으로 끝남	-을 걸 그랬다	먹다 → 먹을 걸 그랬어요
ㄹ로 끝남	추가 없음	만들다 → 만들 걸 그랬어요
한 일에 대한 후회	-지 말 걸 그랬다	먹지 말 걸 그랬어요
혼잣말	-(으)ㄹ 걸	갈 걸
자기 행동만	남에게는 불가	그 사람이 갈 걸 그랬어요(×)

■ 언제 쓰나요

결합은 ㄹ 탈락형을 포함한 표준 규칙을 따릅니다: 만들다 → 만들 걸 그랬어요. 걸은 것들의 준말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다르게 선택했으면 좋았겠다는 뜻입니다: 우산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. 후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의 행동입니다.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어야 했다고 말할 때는 쓸 수 없습니다.

실제로 한 일을 후회할 때는 앞의 동사를 부정합니다: 그렇게 많이 먹지 말 걸 그랬어요. 금지 표현처럼 부정에는 말다를 쓴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.

편한 말에서는 -(으)ㄹ걸로 줄여 쓰며,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: 갈 걸. 이때는 붙여 씁니다.

■ 예문

- 1 비가 오네요. 우산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.
- 2 그렇게 많이 먹지 말 걸 그랬어요.
- 3 어제 일찍 잘 걸 그랬어요.
- 4 집에서 만들 걸 그랬어요. 밖은 너무 비싸요.
- 5 그때 물어볼 걸 그랬어요.
- 6 아, 그냥 살 걸.

■ 비교

-았/었어야 했다

-았/었어야 했다는 지키지 못한 의무를 나타내며 누구에게나 쓸 수 있습니다. -(으)ㄹ 걸 그랬다는 자기 선택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며 더 부드럽게 들립니다.

일찍 잘 걸 그랬어요. (일찍 잤으면 좋았을 텐데) / 일찍 잤어야 했어요. (일찍 잤어야 마땅했다)

-는 게 좋겠다

조언은 앞을 내다보고, 이 어미는 뒤를 돌아봅니다. 같은 상황에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언을, 일어난 뒤에는 이 어미를 씁니다.

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. (일이 있기 전) / 가져올 걸 그랬어요. (일이 있은 후)

-지 말 걸 그랬다

부정형입니다. 실제로 한 일을 후회할 때 쓰며, 앓다가 아니라 말다로 만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.

갈 걸 그랬어요. (갔으면 좋았을 텐데) / 가지 말 걸 그랬어요. (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)

■ 주의

× 집에서 만들을 걸 그랬어요.

○ 집에서 만들 걸 그랬어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들 거예요, 만들 테니까와 같습니다.

× 그 사람이 일찍 올 걸 그랬어요.

○ 그 사람이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.

이 어미는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만 나타냅니다.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바람을 나타내는 다른 구문을 쓰십시오.

× 많이 먹지 않을 걸 그랬어요.

○ 많이 먹지 말 걸 그랬어요.

여기서 부정은 -지 마세요, -지 말자와 마찬가지로 말다로 만듭니다.